

# 비노 '文사퇴' 압박... 오늘 최고위 파행 불가피

## 내홍 새정치, 해결 실마리 못찾고 갈등 증폭

4·29 재보선 패배 책임을 두고 내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 주장과 징계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지도부의 리더십도 표류하고 있다.

◇출당 및 징계요구=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동철 의원이 '공갈 사퇴' 발언으로 소동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이 변화하고 혁신한다는 걸 보여주는 첫 조치로 그렇게 해달라"며 "만약 그런 일(정 최고위원 출당 조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결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날 주장은 정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한 호남 민심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반 당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접수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을 최고조로 증폭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접수가 됐으므로 정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내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표류하는 리더십=최고위원회의가 사

실상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문 대표 역시 점점 코너에 몰리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

여수에서 '집거'한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막말' 파문으로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래' 파문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호남과 비노 출신인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의 복귀 없이는 지도부의 정상화는 물론 당내 화합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의 리더십 역시 힘이 빠진 모습이다.

문 대표는 이날 재보선 후 처음으로 경제특강을 열고 '유능한 경제정당' 행보를 재가하면서 전열 정비를 시도했다.

하지만, 평소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던 것에 비해 이날은 4명만 참석해 김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속되는 압박=비노 진영을 중심으로는 지도부 책임론과 사퇴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2일 "이제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적 이야기라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들이며 실천이 중요하다"며 "전날 문재인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강경 반노인 조경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재인 대표가 사퇴 요구를 묵살하면) 총선 전에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4선 이상 중진 모임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도 지도부 사퇴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참석자는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으면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또 열자는 얘기'는 반박이 나오면서 일단 지도부 사퇴는 요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 원내부대표 신정훈·권은희·백군기 의원

〈농어업〉 〈법률〉 〈안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박수현(충남 공주) 이언주(경기 광명) 의원을 원내 대변인으로 내정하고 부대표 11명을 지명하는 등 원내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신정훈 의원 권은희 의원 백군기 의원

이 원내대표는 또 원내 부대표로는 원내 기획 최원식(인천 계양), 당부 강동원(남일 순창), 여성 최민희(비례대표), 노동 한정애(비례대표), 농어업 신정훈(나주 화순), 법률 진선미(비례대표)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담당 박광운(경기 수원) 부차원(경기 안산 단원), 대외담당 김기준(비례대표), 안보담당 백군기(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지명됐다.

인선 결과 박수현 원내 대변인과 최민희·신정훈·진선미·김기준 부대표 정도는 친노 범주류로 분류될 뿐 대부분은 비주류 인사들로 채워졌다. 앞서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원내대표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윤석(원내수원) 부차원(경기 안산 단원), 대외담당 김기준(비례대표), 안보담당 백군기(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지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개호 의원, 지역현안 해결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함평 영광)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담양 세계대나무박물관에 대비한 담양읍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원 등 지역구 4개 군에 모두 21억원의 특교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해 7·30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불과 10

개월 만에 5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보궐·총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세'를 받아낸 바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1명에게 배정하는 특교세 평균액은 연 15억원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정현 의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역 치매센터 선정"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15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대상 병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설치비 8억2000만원, 운영비 1억5000만원(3개월 분)이 각각 지원되며 운영비의 경우 매년 지원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광역치

매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전남에는 아직까지 광역치매센터 없었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 지역 주민의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이윤석 의원 '유권자 대상' 수상

###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 수석 부대표와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11일 유권자시민행동(상임대표 오호석)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유권자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능·중소 상공인과 골목상권·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윤석 의원 김동찬 부의장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시의회 김 부의장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적 조정을 높여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위기의 새정치, 손학규에 손 내미나

### 복귀 거부 속 구원등판론 확산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이 견잡을 수 없이 벌어지면서 야권의 위기감이 확산하자 강진 토담집에서 집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구원등판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은 아직은 요지부동이다. 일부에서는 당이 어려울 때만 손 전 고문의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

고 있어 '하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내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손 전 고문에 대한 일각의 복귀 요구와 관련, "야당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최대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요새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손 전 고문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전 고문의 장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정치 경력이 좀 많고 좀 더 폭넓은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평가받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만약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할 경우 비주류의 유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손 전 고문이 거거하는 강진 휴집은 지인과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손 전 고문은 복귀설에 거듭 손사래를 치고 있다. 더욱이 야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야당의 무덤'으로 알려진 분당을과 수월 발달 등에 구원 출마하는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지만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외면을 받았다.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손 전 고문을 기억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본인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안동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민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